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0 / 8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매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매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 범정스님 / 버리고 떠나기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8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범정	4	자비로 충만한 삶을 살라
이달의 법문 / 덕현	7	2대 이사장 취임 고불문(告佛文)
생명갈림 / 우희중	16	불교적 생명존중과 생태적 생명존중
산골만화 / 정태경	19	산골에서 살다
채식으로 세상보기 / 이성화	20	육식이 문제가 된 세상
생태 돌보기 / 최원형	22	연제나 여여한 모습으로 사는 이끼
길상사 생태활동 / 문영희	26	종이컵 안 쓰는 길상사 자판기
사진으로 보는 선수련회	28	2010 길상사·맑고 향기롭게 선수련회
맑고의 나눔현장 / 김윤자	30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하는 사람들 / 관음혜	33	안내실의 기도
수행하는 사람들 / 선혜	3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듬	37	7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40	서울모임
	43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46	8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48	4대강을 흐르게 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8월 1일 발행 / 봉권 186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현 / 편집장 이성화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원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wlotus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자비로 충만한 삶을 살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중에서

法頂 (스님)

《숫타니파타》에 수록된 경전 중에서도 ‘자비’의 장은 아주 짧은 경전이다. 분량은 짧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주석서에 따르면, 부처님은 이 ‘자비’를 호주(護呪, 보호해 주는 주문)로 써도 설했다고 한다. ‘주문’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이 중얼중얼 외우는 다라니나 진언 같은 것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주문이 진실한 말(眞言)이라면, 그 뜻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외워 실천해야 한다. 아무 뜻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공덕이 된다고 하지만, 굳이 공덕을 따지기로 말하면 뜻을 모르고 건성으로 외우기보다는 뜻을 알고 그 뜻

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편이 훨씬 공덕이 되어야 한다.

불타 석가모니의 이성적인 가르침에 비밀은 없다고 부처님 자신이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 다라니나 진언에 어째서 뜻이 없단 말인가. 뜻 없는 소리를 무엇 때문에 경전에 수록했겠는가. 원어를 깨쳐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진실한 말씀’의 뜻을 엉뚱하게 잘못 받아들인 데서 온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이런 자비의 선언이야말로 ‘진실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인간 본위다. 그래서 소나 개, 돼지, 노루나 사슴, 토끼 같은 짐승은 모두 사람들에게 잡아 먹히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냈다고 한다. 소나 개한테 가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것도 없이 유목 사회에서 나옴직한 가설이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자비는 인간 본위가 아니라 생명 본위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一切衆生)은 생명의 큰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라는 것. 그렇게 때문에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한다. 만일 산목숨을 해치거나 괴롭히면 큰 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살계의 첫째는 불살생(不殺生)을 강조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는 안 된다. 즉 죽이는

인(因, 직접 원인)과 죽이는 연(緣, 간접 요인)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불살생계를 두고 이처럼 상세히 규제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일찍이 어디에서도 본 바가 없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계(戒)는 타율적인 또는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규범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자기 삶의 규범에 균열이 생긴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을뿐더러 한 걸음 나아가 보살피고 사랑하라는 것.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

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했다.


그리고 또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함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고 했다.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를 행하라고 한 것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그저 그렇고 그런 한낱 경전의 표현으로 여기고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다. 소리 내어 읽으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비의 생활 규범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사는 일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자비로 대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의 삶이 곧 자비로 충만해질 것이다.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런 생활 태도를 가리켜 승고한 경지 또는 신성한 경지라

고 부른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조그마한 것을 갖고도 거기서 넉넉함을 알고,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메지 않는다. 될 수 있는 한 비본질적인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고 담백하게 한다. 보고 듣고 하는 감각이 안정되어 마음이 항상 평온해 흐트러짐이 없다. 그리고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세간살이나 가재도구를 보고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은 이미 자비로 가득 채워져 있어 더 채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세간적인 갈등이나 미혹이 없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 경전은 끝을 맺고 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2대 이사장 취임 고불문(告佛文)

德賢 (이사장)



부처님께

불멸 후 2554년 하안거중, 제자 덕현은 삼계대도사 사생자부이신 본사 석가세존께 삼가 고하나이다. 삼업이 아직 청정치 못하고 불법의 심지를 꿰뚫지 못한 불초비구가 법정대종사의 뒤를 이어 맑고 향기롭게의 수장이 되어 말세의 사부대중 앞에 서게 됨이 참으로 외

람됨에 심히 참괴하나이다.

여래의 법은, 본디 중생의 마음이 곧 불성이라 하고,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 하며, 중생이 그 무명과 애증, 선악시비를 여의기만 하면 그대로 부처라 하셨으니, 오늘 소승은 이 고준한 심지 법문에 의지하여, 하열한 근기와 타고난 업습의 미혹함을 무릅쓰고 이 과분한 직책을, 평생안거의 결계방에

서 주제에 맞는 하소임을 맡은 것으로 여겨, 대중과 함께 이 불후말세 중생의 마음과, 오락악세와, 저희 두 눈 어둔 중생이 의지한 세간을 맑히는 일에 나아가옵니다.

바라옵건대, 삼계에 집착을 아직 끊지 못하고 원력도 장하지 못한 이 중생을 애민히 여겨 부디 증명하고 가피하여 주옵소서. 무상과 무아의 진리는 무상사無上師 부처님의 법인法印이니, 크고 작은 공덕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사소한 허물도 천금같이 여기는 겸허로써 점차 무위도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세세생생 자리이타의 보살도에서 퇴전치 않게 하옵소서. 구경에는 이 자리에 몸과 마음으로 동참한 모든 어진 도반들이 너나없이 스스로의 열반을 구해 나아가 성취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웃들이 남김없이 두루 대안락을 얻어지이다.

법정 先師께

삼가 스승님께 아뢰입니다. 사부를 잘 모시지 못한 회한과, 너무도 일

찍 당신의 해안과 자비로운 품을 여인 황망함과 슬픔은 떨치기 어려운데, 당신의 크신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기다려 찾지 못하고, 급기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한 소승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입적 직전 온 몸에 조여오는 병고 속에서도 초인적인 의지와 기상으로 수행자의 탈속함과 맑고 분명한 정신을 지키셨으며, 오직 맑고 향기롭게와 그 근본도량 길상사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거듭거듭 홍금을 털어 보이셨음에, 변변찮은 중노릇하는 동안 줄곧 혼자 생각만 하고 내키는 대로 살아오던 제자마저 이렇게 일말의 가책을 느껴 뒤늦게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단순명료한 한마디는, 이 세상에서 무상한 목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 세상은 무엇이고 어떤 미래를 향해 열려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법다운면서도 시의적절한 해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이 땅

의 영혼들을 깨우는 정책, 가슴을 적시는 음성, 지친 걸음을 향해 내미는 손길입니다.

스님, 이제 비로소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가늠하고 있습니다. 저와 1만여, 그리고 앞으로 도마죽위稻麻竹葦처럼 더욱 늘어날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은 감히, 언제나 안팎이 분명하고 행해行解가 늘 한결같으셨던 스님의 이름으로, 생사의 길에서 마음의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저 공왕空王 부처님 법의 약을 베풀어 가시게 하고, 애증에 어지럽게 얽혀 벗어나지 못하는 인연과 관계의 병을 무아와 대자대비의 약으로 다스리며, 온갖 조건과 환경의 얽매임에서 고달파하고 두려워하며 내는 신음을 무집착과 무소유의 약으로 치유해가고자 하니, 부디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운 스승이여,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간청하오니, 어서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와 저희 허물을 한 번 더 감싸 용서하시고 섭수하여 이끌어 주십시오. 중생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으

므로 보살의 눈에도 눈물이 마를 날 없으며, 중생이 생로병사의 고해에서 허우적거리니 보살의 자항慈航이 닦을 내릴 겨를 없나이다. 저 불보살의 대행원大行願이 다함없듯 저희들의 지혜와 자비심도 속히 일월처럼 원만하여지고 서원의 힘과 실천행도 샘물처럼 끝없어지이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에게

존경하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 여러분, 중앙과 지방의 사무국에서 그간 애써 일해 온 직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이사장이셨던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그동안 맑고 향기롭게를 슬기롭게 이끌어 오신 이사, 감사 여러분, 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안팎의 모든 불자님, 먼저 그동안의 여러분의 노력과 지난한 노고에 대하여 삼가 큰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기수행의 길에서 심청정心淸淨을 다 이루지 못한 스승이, 한 시대의 스승이셨던 법정스님을 대신해 오늘 이 무겁고 중대한 소

명을 맡고 보니, 고개를 들 수 없고 발길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준비가 부족하고 기량이 비루해도, 저는 바로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명처럼 살아오는 희망과 비전을 보고, 그 동안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온갖 역경과 시련을 딛고 향상의 일로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온 여러분의 선의지와 구도심에 힘입어, 감히 여러분의 뒤를 따라 조심스레 길을 나서며 맑고 향기롭게의 미래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과 법정스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심력을 회복하고 보다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구호나 운동이기 이전에 내밀한 수행과 자기정화를 통해 나아가는 침잠과 귀향의 길이며, 말을 타고 칼을 든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의 원정길이기보다 저 디오게네스나 동양의 수많은 은자와 선비, 현인의 길이며, 전문성왕의 보위를 버리고 고행의 구도행각을 나선, 바로 우리의

위없는 스승, 부처님의 길임을, 이 길의 구참이신 여러분께서 더욱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명리와 이해를 두고 각축하는 세상의 길이기보다는 안팎의 속된 것들을 버리고 떠나 고요하고 청정한 내면으로 가는 길이며, 화려한 용단이 깔린 현시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랜 인고와 침묵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지나가야 하는 오솔길입니다. 그것은 꽃과 열매를 향해 하늘로 나아가는 줄기와 가지와 잎의 길이지만, 그에 앞서 낮은 지면에 처하고 어두운 땅속으로 향하는 밑동과 뿌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무상의 바람을 역류하여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 영원하고 지고의 안락을 얻으려하는 우리가 불법 안에서, 그리고 법정스님 문하에서 이 맑고 향기롭게의 울타리 안에 모였다는 것은 지극한 축복이요 가슴 벅찬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만일 불조께서 이 사바의 세상에 출세해 생사를 넘어서는 감로의 법을 설하지 않으셨

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금을 통틀어 막막하고 부조리한 어둠의 시간이요, 피맺힌 한과 좌절의 몸부림이며, 서로 얽어매고 물어뜯는 금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없는 폐허와 즐비한 시신 위에 무상의 칼바람만 부는 덧없음의 그림자.

또한 우리의 스승 범정스님께서 가장 파스한 가슴으로도 가장 가벼운 걸음을 걷는 한 생의 외롭고 높은 여행자였고, 우리말의 음률과 미려한 표현에 출중하고 탁월한 연금술사였으며, 고아한 감성과 빼어난 안목으로 음악과 미술 전반을 통찰하며 매우 자연스럽게 일상을 품격 높고 우아한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예인이셨고, 차의 정신에서 고도로 정제된 맑고 향기로우며 길어낸 다인이셨지만, 무엇보다 가장 고전적인 비구로서 불도의 수행자요 선승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를 꿰뚫어 매우 다채롭고 격 없이 활발했던 스님의 정신적 행동반경은 불법의 대해에서 저 심연까지 나아가는 고독하고 무서운 자기침잠의 산물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불문 안의 구도자들로써 기본적으로 스님의 그 스님다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맑고 향기롭게 역시 바로 이 비구 범정의 불교사상의 시대적 적응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스님의 이른 입적으로 얼마간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맑고 향기롭게와 그 근본도량 길상사의 미래, 그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범정대화상을 영원히 이 모임과 도량, 또 승속 문도회의 회주로 받들고 모실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길상사의 개산조關山祖이자 이미 생전에 맑고 향기롭게의 회주이셨던 선사先師를 지금 다시 회주로 모시는 일은 마치 불교의 초조이신 부처님을 만견토록 이 불법의 교주로 모시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뿐더러, 아직 중생의 분별과 아상을 떨치지 못한 우리들의 분별과 알력을 미리 막고, 우리가 중국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내내 잊지 않도록 해 줄 것입니다.

둘째, 오늘 맑고 향기롭게의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저는 이 모임이 이 시대에 화중생련火中生蓮처럼 피어나는 수행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현실태의 측면에서 보면 원숭이보다 별반 나은 것이 없는 동물이지만, 가능태의 측면에서 보면 신을 능가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자입니다. 부처님은 그 가능성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몸소 증명해 보이신 분이요 우리의 범정스님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늘 묵은 등지를 털고 치열한 닦음을 향하여 외로이 길을 나서는 구도자였으며, 이곳에 길상사를 세우고 맑고 향기롭게를 시작하신 것도 결국 사부대중의 수행공동체, 대승의 열린 승가를 구현하고자 하신 것이었다고 봅니다.

여래께서 드신 진리의 등불이 지나간 생사의 어둠을 헤매어온 우리를 저 진실하고 영원한 안식과 지복, 대자유와 절대평등의 무량광의 세계로 이끌어 가리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진리를 찾는 길에서 진실로 겸손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늘 초심과 초월의 마음으

로 호흡과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반성과 각찰로 새롭게 깨어나 수행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 아만과 애착과 증오의 업류業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용맹심을 내어 헤엄쳐야 하며 속히 불조의 반야선般若船에 올라 내 스스로가 그 해명을 잇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대비원력으로 거듭나 몸소 대승의 자향을 저 고해苦海에 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몰가치와 정신적, 영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생사의 부조리와 현실에 대한 암울한 비관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 새 힘을 내게 합니다. 수행은 와해되어가는 낡은 가치와 기존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는 자기다음으로 늘 안락하고 진정 의지할 만한 공동체 안에 지켜주고, 덧없는 것들에 대한 천착과 아집의 벽을 허물고 내면의 견고한 마음자리로부터 이웃과 드넓은 세상을 향해 마스한 향기를 물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나아가게 합니다. 수행은 우리를 자기답게 하며 이웃을 향해 진실한 사랑 속에

서 나누는 바 없이 모든 것을 나누게 해 줍니다.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으려하는 문명학의 분야에서 대단히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아놀드 토인비는, “지난 20세기를 통틀어 제일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 불교가 서양에 알려지고 보급된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것은 가장 고준한 수행의 종교가 세계사의 향배를 좌우할 방향타를 잡기 시작했다는 말이며, 새로운 세기는 과학기술문명의 선두주자들이나 경제력, 군사력의 대립구도에서의 승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를 초극한 승리자, 저 위대한 수행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구원되리라는 미래학적 예언이라 여깁니다.

저는 우리 맑고 향기롭게의 회원들이 저마다 자기다운 수행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도반으로 여기며, 이 청정한 승가가 국경과 모든 차별의 벽을 넘어 확대되고 확대되어 온 세상을 진실로 원만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주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다만, 맑고 향기롭게는 보·혁의 스펙트럼 위에서 한 극단에 선 이데올로기적인 변혁운동이 아니므로, 서두를 것 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깨침과 인식 전환의 속도에 맞추어 언제나 평화롭고 여유롭게 행진하는 숲속의 보행자처럼 전진할 것입니다.

셋째,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의 맑고 향기롭게는 불법과 법정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순수하고 높은 옛 문화와 가치들을 오늘에 되살려 체현해 내고 자연의 품으로 더욱 다가감으로써, 현금의 우리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시대의 병을 치유하며, 전체 인류를 향해 밝고 믿을 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해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언제나 온 우리의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했으며, 언제나 자연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살아가고,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영혼을 고양하며, 그 병을 치유했고, 법정스님은 일제치하와 한국동란의 비극을 떠나 입산 출가하여 뜻을 세우고 시대적 소

명을 자각하였으며, 불일의 광명이 비치는 암자와 물 흐르는 산방에서 노년의 반생을 회향하며 세기적 스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수행자들로 하여금 될수록 숲속에 머물며 소옥지족의 정신과 법희선열로 자리아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시대에 문명적 대안을 찾는 우리들은 이제 보다 깊이 자연과 동화하며, 세계를 향해 마음을 열면서도 가끔은 눈을 안으로 돌려 멀리 지나온 우리 선조들의 자취 속에서 매향비와 온돌과 한옥, 고적한 국악의 선율과, 한복의 선과, 우리 청자와 백자와 분청사기, 식재료로부터 고도의 발효기술을 통하여 가장 깊은 맛을 끌어내며 모든 것을 조화롭고 궁합에 맞게 협연시키는 음식문화, 청적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가장 질박하게 그려내는 차문화, 청빈하고 유현한 내면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과 나라를 극진히 섬기는 선비정신, 현묘한 서도화의 세계,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엿보이기 시작한 우리 전통사찰의 온갖 라이프스타일과 그 현묘하고 융통한 정신세계와 불교미

술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다시 배우고 외부에 소개하고 알렸으면 합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도 취나 소비니즘을 위한 억지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발전이나 인류의 공리주의적 행복을 도모하고 견인하는 진정한 한류를 위한 제언이며, 서양문명의 홍수 속에서 대부분 손상되고 유실되어가지만, 최소한이 토양과 우리의 의식구조나 체형에 가장 걸맞은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입니다.


넷째, 이제 맑고 향기롭게는 너무 초기의 틀과 규모를 고집하는 조직의 경직성과 활동의 소극성을 떨치고 새롭게 도약하고,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응집된 역량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과 법정사상이라는 구심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한 종교의 울타리 너머에서도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응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며, 이사회도 점차 능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인력들로 채워져 더 활기를 띠었으면 하고, 중앙과 지회도 보다 잘 연결되어 상승발전하며, 정치권력이나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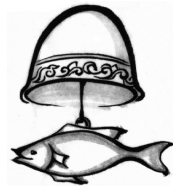
이기주의와의 긴장관계에서 필요한 선택과 노력의 집중도 회원들의 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국제적 안목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점차 실행해나가는 맑고 향기롭게 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주스님의 입적전후로 더욱 고조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 조만간 맑고 향기롭게 중앙회관이 건립되면, 충실하고 커져가는 조직과, 확대되어갈 모든 활동을 담아내며 바야흐로 맑고 향기롭게 우리 사회와 세계를 향해 모든 생명에게 전해지는 향기를 드러내리라고 확신하며 더 큰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사회에서, 지회에서, 혹은 이름 없는 회원의 위치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울여온 애정과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생각하면 사실, 이상의 그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이사장으로서 노년의 병상에서 미천한 저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셨던 회주 고법정스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다시 저를 2대 이사장으로 호선하여 회

주스님의 빈자리를 반에 반이나마 채우게 하신 이사님들의 염려와 노파심을 받들며, 이 도량 안팎에서 그 동안 저를 애써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회원, 비회원 여러분의 충심에 미력이나마 보답하고자 부족한 소견을 피력하며 취임의 늘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맑고 향기롭게의 주인이 되셨다고 느끼시기를 삼가 바라며, 우리의 남은 날이 청정한 마음의 고향, 사람들 모두 진실로 믿고 돌보고 나누며 함께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정토淨土, 마음껏 숨 쉬고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터전으로 달라져가는 세월이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이 모두가 향기로운 축제가 되기를, 불전에, 법정스님 영전에, 여러분 내면의 본래 부처를 향해 빌고 빕니다. 나마스테. 





불교적 생명존중과 생태적 생명존중

우 희 중

법명 여산,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송광사 현전스님의 유발상좌로 '무'자 화두로 간화선 수행을 했다. 정부의 쇠고기수입정책을 비판하며 「생명과학과 선」 등의 저서가 있다. - 편집자 주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생명존중과 비폭력의 가르침을 지닌 불교이기에 불자라면 누구나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살생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다른 생명체의 자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불교적 행사로써 방생법회가 있다.

이런 불교적 시각과 유사한 것으로서 근대과학의 생태파괴에 직면하여 세상 만물이 생명의 그물망(web of life)으로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지구 공동체로써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생태적 생명존중이 있다.

생명존중에 있어서 불교의 입장과 일반적인 생태주의적 관점이 표면적으로 유사하고 더욱이 그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서 종종 불자들 중에 불교적 생명존중과 세속의 생태적 생명존중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21세기의 생태주의와 불교가 얼마나 같으나면서 타 종교에 대한 불교의 우월성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안다면 그러한 언급은 불교를 모르거나 불교를 스스로 일반 철학적 사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이다.

불교적 생명존중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면 생명존중과 생명집착의

불가의 생명존중은

단순한 죽음의 회피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기 실상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쉽다. 이는 불가에서의 불살생의 진정한 의미 내지 방생 정신의 참뜻을 알게 해 준다. 간단히 생각해 볼 때 현대 사회는 노화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마저 철저하게 우리들의 시각으로부터 가려져서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인 수준의 생명 존중에는 죽음에 대한 회피를 넘어 생명이나 생명력의 상징인 젊음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남을 알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철학이나 환경 수준에서의 생명존중은 죽음을 피해야 할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생명에 대한 집착을 담고 있다.


한편 불가에서는 생사일여라는 말

이 있듯이 불교에서는 생과 사를 동전의 양면처럼 바라보며 더 나아가 그 어떤 관념에도 머무르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가르친다. 무조건 오래 살기 위해 생명에 집착하는 것과 불가의 생명존중은 철저히 다르다. 불가의 생명존중은 단순한 죽음의 회피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기 실상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사실 한 개체의 생사는 그리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 개체의 생멸이란 단지 인연 덩어리의 생멸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불가의 생명 존중이 아니라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는 것이 진정한 생명존중이다. 결코 생에 대한 집착이 생명존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생과 사를 여여하게 본다는 것

은 연기적 세계관에서 있는 것이며 불살생과 비폭력은 모든 생명체의 이러한 연기적 관계에 깨어있음을 말한다.

남전 선사가 고양이를 벤 것은 한 개체의 생멸에 연연해하는 - 즉 생명에 집착하는 차원에서 보면 불살생계를 범한 것이지만 연기 실상에 대한 철저한 자각 속에서 본다면 바다에 작은 물결이 일었다가 스러짐과 같은 이치이다.

생명존중에 대한 진정한 불교적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생명존중을 또 하나의 관념적 상(相)으로 만들어 죽음을 회피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면서 그 안에 갇혀서 부자유스럽게 된다. 불행히도 불교계에서도 일반적 생명존중과 불교의 깊은 생명존중의 차이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니 불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과 사를 한편의 구름이 피었다가 지는 것으로 보는 불교에서는 생에 집착하지도, 죽음을 미화하지도 않는다. 생사에 자유롭고 오직 생멸을 거둬하는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 있을 뿐이다. 





평화롭고 ...



산골에서 살다

정태경

급한 것은 없지만
할 일은 많은



맑고 향기롭게와
정토회에서
간사로 일했다.
현재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만화를 그리고 있다.

도시 습관? 빨리! 빨리!

마음은 여유롭게 몸은 느리지만 부지런히
산골 생활의 내공이 필요하다





육식이 문제가 된 세상

이 성 학 (기획실장)

우리나라에서 육식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은 최근 30~40년 내의 일이다. 지금 40~50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육식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때는 전반적으로 못 살았었고 명절 때나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말하자면 고기는 어쩌다 한 번 먹는 특식이었던 셈이다. 고기를 사먹기 힘든 서민들은 부족한 단백질을 고등어로 보충했는데, 그래서 생겨난 말이 '고갈비'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미국에서 LA갈비가 수입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육류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30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196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육류 섭취량은 14배, 어패류는 4배, 유류(乳類) 및 낙농제품은 35배 증가했다.(1인 1일 섭취량은 육류가 6.6g에서 91.7g, 어패류가 18.2g에서 64.1g, 유류 및 낙농제품이 2.4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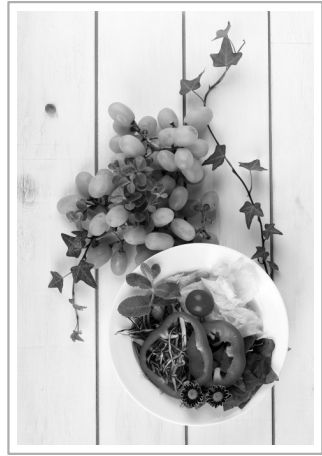
에서 84.6g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를 동물성 섭취비율로 환산하면 1969년 3%에서 2001년 19.9%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곡물 섭취량은 559g에서 310.5g, 감자 및 전분류는 75.6g에서 26.5g으로 크게 감소했다.(김초일 「한국인의 식생활 현황 및 개선방향」)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당뇨, 고혈압, 암 등 성인병도 10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 길거리에 나가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회 등 온통 고깃집뿐이다. 항간에 음식장사는 고깃집을 해야 돈을 번다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사람들이 고기만 찾고 어느덧 우리 입맛이 고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으로 환호작약하던 지난 6월 치킨은 국민 간식이 되어 말 그대로 날개돋친 듯이 팔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통계에 따르면 6


월 한 달간 전국에서 도축된 닭은 7,400만(7,370만 7,391) 마리로 5월보다 11%, 지난해 6월보다 7% 증가했다. 이는 수입 닭은 제외한 통계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수입된 닭은 3만 5,414 톤으로 지난해 보다 82.5% 늘어난 규모다. 이런 기세라면 올해 도축당할 닭은 7억 마리를 넘겨 국민 한 사람당 한 해 닭 14.7 마리를 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UN의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육류소비는 줄어들 것 같지가 않다. 2006년 11월 29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육류 생산은 1999/2001년에 2억2천9백만 톤에서 2050년에는 4억6천5백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우유 생산은 5억8천만 톤에서 10억4천3백만 톤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축산업의 긴 그림자를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70% 이상이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불태워졌으며 축산업이 지구 전체 온실기체의 18%를 배출해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13.5%보다 훨씬 많다고 하였다. 이처럼 최근 반 세기동안 육류소비가 급



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살생도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도 살생은 더 증가될 전망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할 수 있을까. 전 지구적으로 자행되는 인위적인 살생을 줄이는 길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서 살생이란 인간만이 아닌 동물도 포함된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기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키워 죽이는 오늘날의 ‘공장식 축산업’은 어떠한가?

환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제는 육식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상이 되었다. 



언제나 여여한 모습으로 사는 저, 이끼랍니다

최 원 형

법명 심지명, 길상사 도서관 봉사팀장 EBS와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도시에서 생태감수성 키우기'(랜덤하우스코리아)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 편집자 주

늘 곁에 있어서 오히려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다가 우연히, '그래, 네가 있었지...!' 하며 반가웠던 기억, 더러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 능소화가 한창인 길상 뜨락은 주홍과 초록이 어우러져 눈길을 끄니다. 눈길을 끄는 것이 능소화뿐은 아닙니다. 여러 들꽃들의 꽃빛깔도 아름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느티나무와 참나무 등 아름답드리나무들은 녹음이 짙어지며 짙푸른 청록을 한껏 드리웁니다. 이렇듯 화려한 색깔과 압도적인 크기에 밀려 그닥 우리들 눈에 띄지 않는 잔잔한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끼'입니다. 어디에선가 이끼를 '작고 부드러운 식물'이라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이끼를 잘 표현한 말 같습니다.

차집에서 길상현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낮은 돌담에서, 돌담 위에 올라와 앉은 기와에서, 느티나무 허리춤에서, 무슨 연유에선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꺾어버린 나뭇가지 돌레에서, 혹은 선열당 앞 연못 돌레에 빙 둘러쳐진 돌맹이 사이사이 어둑어둑한 곳에서... 별이 좀 덜 들고, 습한 기운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십중팔구 이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린 봄꽃에서 겨울 눈꽃에 이르기까지 계절 따라 사람들의 맘이 온통 들락날락하는 동안에도 이끼는 그곳에서 사계절을 맞고 보내고 있는 거지요.

생명체가 지구 위에 존재하던 그 때로부터 거슬러 내려오다 보면 식물



〈느티이끼버섯〉

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식물은 물속에서 살았고요, 그러다 땅 위로 올라 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땅 위로 올라온 식물이 바로 ‘이끼’라고 합니다. 물속에 살던 녹색말이 진화하여 땅 위에 사는 식물로 바뀐거죠, 그렇지만 땅 위 식물로 온전히 진화하지 못해 실제 생김새나 사는 방법이 다른 식물들과 많이 다르답니다.

이끼는 그 생김새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냥 지나치듯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 좀 더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면 이끼마다 생김새가 참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담을 살펴보면 돌과 돌 사이 이음새에서도 이끼가 자라는데요, 초록빛깔의 폭신한 융단 같습니다. 길상현에서 행지실 쪽으로 가다보면 계곡 왼편에 축대로 쌓아올린 돌담이 있는데요, 그 틈에 여송연 이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열당 앞 연못 돌레나 큰 바위를 보면 솔이끼가 주로 있고요, 깃털이끼 종류도 보입니다.

오래된 느티나무나 참나무 수피에도 이끼가 붙어 있습니다. 길상선원에서 계곡 쪽으로 난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느티나무를 살펴보세요, 그 느티나무 바로 곁에 나무 의자가 있어 신발 벗고 의자 위에서 살짝 올려다보면 가지가 잘려나간 자리가 보입니다. 느티가 가지 잘린 상처에 ‘옥신’이라는 치유 물질을 보내 손질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옥신으로 덮이지 못해 썩어가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곳에 이끼가 잔뜩 덮여 있습니다. 어느 비 온 다음날엔 그 이끼 위로 버섯이 두 개 자란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여러 종

‘시시 때때로 바뀌는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그저 늘 그 자리에서 여여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도 한 번 닦아 볼래...?’

류의 이끼들이 느티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느티 줄기에는 더러 매화나무 이끼라고 불리는 것도 함께 삽니다. 이끼와 무척 흡사하게 생겨 이름에도 이끼란 말이 들어가지만 이들은 사실 이끼가 아니라 지의류라고 합니다. 참고로 식물 분류상 이끼는 선태류에 속합니다.

유마선방 앞에 둘러쳐진 대나무 울타리 아래쪽에 더러 솔이끼, 깃털 이끼들이 오순도순 자리잡고 살고 있습니다. 설법전에서 송풍각 쪽으로 가는 길 왼쪽 길옆 여기저기서도 이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아래 축축한 곳에서 이끼의 양증맞은 모습에 맘을 빼앗기다보면 이끼 위로 산책 나온 개미나 쥐며느리, 공벌레 등 작은 생물들을 덤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운 좋으면 멋진 거미줄을 발견하는 보너스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많은 생명들이 작고 오밀조밀한 공간 속에서도 서로가 경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며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끼를 재미나게 볼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10배 정도의 확대경 혹은 그냥 돋보기도 좋습니다. 그걸로 살짝 들여다보세요. 이끼를 정면으로 내려다보지 마시고 곁에 눕듯이 옆으로 비껴서 본다면 이끼의 홀씨가 담긴 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이란 홀씨를 담고 있는 주머니(capsule)란 뜻입니다. 고깔을 쓰고 있는 무수한 삭들이 솟아오른 그 모습은 경이롭습니다. 마치 숲 속에 난쟁이들이 나와 행진을 하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구요. 그 삭이 익어 홀씨가 다 만들어지면 고깔을




〈 이끼와 흙씨주머니 〉

벗어버립니다. 바람이 불거나 누군가가 건드려 삭이 흔들릴 때 말이죠. 이끼는 흙씨로 종족을 퍼뜨립니다. 육안으로는 관찰하기 힘들지만 삭의 고깔이 떨어지면서 흙씨가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그 힘으로 이끼는 제 영역을 유지하고 조금씩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식물들은 계절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끼는 이렇다 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는 더욱이나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이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끼의 삶이 그렇다고 마냥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의 몇 십 배나 되는 수분을 저장할 수 있고, 추운 극지방에서부터 우주 공간까지 살지 못하는 곳이 없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물들지 않고 사계를 곳곳이 견디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환경오염의 바로미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수분이나 오염 정도를 이끼의 생태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니 이끼가 우리 생활에 미치고 있는 영역이 조금씩 넓혀지는 듯합니다.

천천히 길상의 이곳저곳을 거닐다 만나게 되는 이끼는 제게 종종 이런 말을 들려주곤 합니다.

‘시시 때때로 바뀌는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그저 늘 그 자리에서 여여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도 한 번 닦아 볼래...?’
라고 말이죠. 



종이컵 안 쓰는 길상사 자판기

문 영 희 (생태팀)

자판기에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운동이다. 종이컵은 현대인들의 문화적이고 도시적인 우월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유용한 종이컵의 유혹은 이제 떨치기 어렵다. 종이컵은 정말 위생적일까? 간편한 게 좋기만 한걸까?

종이컵이 되기 전의 아름다리 멋진 나무 종이컵 제작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펄프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벌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1,000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미터 정도의 나무가 필요하다. 벌목이 행해지는 열대우림은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이며 수많은 동식물들이 기거하는 삶의 터전이다. 이런 숲이 사라지는 것이다.) 벌목된 나무는 공장으로 운반되어 예리한 칼날로 잘게 부수어지고 거기에 수차례의 약품처리로 표백, 세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종이컵이 만들어지는 공정 또한 접착제와 위생적이라 할 수 없는 대량생산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용달샘 표주박 바가지를 생각하며 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보자. 지난 가을 울타리에서 자라난 못난이 박바가지에 우물물을 떠 담아 버드나무 두어잎을 띄운다. 목이 마르던 우

길상사에 생태팀이 생겼다. 앞으로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생태팀의 첫 활동은 '자기컵 쓰기' 운동이다. 자판기의 일회용 종이컵과는 이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다. 생태팀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은 종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 편집자 주 -

리는 물을 휘이 불어가며 갈증을 해소한다. 마음과 정서의 갈증까지도.

자, 이제는 다른 장면이다. 수차례 세척과 표백과정을 거친 종이컵. 약수터의 소박한 바가지. 바가지가 더러워 보일 수 있으나 실은 늘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정화된 웅달샘 우물가의 표주박이 더 위생적일 것이다. '위생'에 대한 강박, '편리'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돌아봐야하지 않을까?

우리는 자판기에서 종이컵을 빼면서 '종이컵 없는 자판기' 운동이 전시용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곳이 자연을 덜 손상시키면서도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써왔던 예전의 표주박 바가지처럼 자기컵이 종이컵을 대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시원한 웅달샘 위에 동동 떠있던 조그마한 표주박바가지를 생각하며... 





사진으로 보는 선수권희 ~~~~~

2010 길상사·맑고 향기롭게

여·름·선·수·권·희





Gallery





2천 명 어르신, 맛나게 드세요

-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

길 윤 자 (서울노인복지센터 월요팀 봉사자)



부지런히 집을 나서는데 아침부터 찌는 더위다. 오늘이 삼복더위 중에 초복이니 당연하다. 벌써 이한 해도 중반을 훨~ 넘어섰다.

문득, 우스갯말 중에 “새 중에 가장 무서운 새는 ‘눈 깜짝 할 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세월의 흐름이 그만큼 빠르다는 비유이다. 그 빠른 삶속에서 참 존재인 나를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본다면 정말로 무서운 말이 아

닐 수 없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들어서니 더위도 아랑곳없이 맑고 봉사 회원들이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보이며 반가이 맞아 준다. 휴가철에 들어섰으련만 맑고 팀은 봉사자가 줄기는커녕 새로운 얼굴도 보인다.

일 잘하면 일복도 많은 터라 오늘따라 아예 A배식, B배식 두 곳을 다 배정받았다. 주방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 스테미너 메뉴

로 “닭개장”과 후식으로 “수박”까지 준비되어 있다. 붉은 단물이 푹 푹 흐를 것 같은 달디 단 수박은 우리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 후원했다. 수박은 단단하지 않고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 이 초복 어르신들께 아주 그만이다.

유난히 고사리향이 좋은 닭개장을 퍼 담는데 그 더운 김에 얼굴이 훗달아오른다. 하지만 기름 국이 식을까 염려되어 선풍기를 돌리기도 조심스럽다. 어르신들은 입맛에 맞으시는지 추가 국물도 많이 찾으신다. 평소보다 많은 양을 준비했다는 조리장님의 말씀을 믿고 후하게 드리니 내내 마음이 흡족했다.

어르신들께서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쿵~’ 웃음이 나왔다. 어르신들마다 “어~, 시원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 게 아닌가. 얼큰하고 더운 국물을 먹노라면 누구나 저 같은 표정과 표현을 한다. 그만큼 일상의 평범한 말이다. 이열치열(以熱治熱), 열로써 열을 다스리는 우리네 지혜인 줄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늘따라 아주 명쾌한 선문답(禪問答)으로 깨우쳐진다.

지난 봄 입적하신 법(法)자, 정(頂)

자 어른 스님께서 언젠가 「벽암록」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를 예를 드시면 법문하셨던 기억이 난다.

동산선사와 그 제자의 일화이다.

“몹시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라.”

제 아무리 ‘삼복더위’라도 일에 열중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면 더위를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아채는 이 ‘참 나’는 또 얼마나 대단하고 신비한 존재인가!

나는 늘 깨어있는 나를 염두에 두면서 실천하고자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글귀가 있다.

‘일즉일체 다즉일(一卽一切 多卽一)’

「법성계」에 나오는 귀절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이다. 그날 어른스님께서 아주 쉽게, 가슴에 와 닿게 풀이해 주셨다.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세상과 타인에게 도달하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리의 세계이다.”


이 얼마나 가슴 뜨겁고 생생한 말씀인가.

오늘 이 식사가 있기까지 빈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과 공들여 조리해 주신 분들과 이열치열 맛있게 공양을 들어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자신이 더위가 되어 맑고 밝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봉사 회원님들, 아~, 또 있지. 그 식재료가 있기까지의 과정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다.

나는 때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

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고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좌복에 앉지 않아도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의 발돋움의 너무 아름다워 선열(禪悅)같은 감동을 받곤 한다.

“아~, 이 시원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지난번 병원에 입원하신 이정은 봉사 회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와 맑고 향기롭게 모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소재한 어르신 이용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탑골공원 성역화 작업에 따라 노인복지공간으로 2001년 4월 개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지원 서비스와 정보 제공, 기초건강검진을 비롯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와 종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예비 사회적기업인 실버북카페 <삼가연정>과 노인용품전문점 <은빛행복가게> 운영,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본 모임에서는 이곳,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어르신 대상 점심 무료급식에 매주 월요일 그리고 첫째 수요일에 정기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요일(모듬장: 권미자 회원)은 평균 25명 내외, 수요일(모듬장: 변윤정 회원)은 15명 내외의 회원들이 참여, 배식 및 설거지, 잔반처리, 수저와 휴지 나누기, 장내 정리 등 급식시 필요한 일손이 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의 점심 무료급식 봉사는 오전 10시 30분 집결해 센터 측 담당자로부터 그날의 역할을 부여 받은 후 오후 2시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내내 서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하루 평균 2천명 내외의 어르신들의 식사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만큼 비교적 힘이 드는 나눔 활동입니다.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중앙모임

☎02)741-4696~7번으로(담당자 김자경 간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안내실의 기도

관 음 혜

안내실의 첫 인상이 떠오릅니다. 지난 2007년 이맘때 쯤, 문수회에 봉사할 회원을 자원받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무덥던 여름, 첫 모임이 있었지요. 그때 안내실은 그저 텅 빈 하얀집 같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안내실은 알콩달콩 고소한 내음을 풍기며 텅 비어 있던 그곳을 미소로 채우고 있습니다. 안내실은 길상사의 첫인상이니까요.

우리의 기도 법정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길상사는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대중들 역시 길상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상사의 문을 흐르는 대중의 폭이 더욱 넓고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안내실의 임무도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지요.

‘길상사’하면 법정스님을 떠올리게 되고, 길상사 초입에 있는 안내실은 법정스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첫인상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내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법정스님의 마음을 닦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실은 진열장의 물품들을 계산하는 곳만이 아니라 법정스님의 글귀가 한 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져, 종교를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길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하는 곳입니다.

특히 법정스님 49재 동안에는 안내실에 스님의 책을 구하려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갖고 있는 책 목록을 적어 와서 빠진 책을 채우는 분들, 한 권이라도 구해서 좋은 인연들에게 선물하려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불교에 대해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안내실에 오셔서 기도법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상황(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황)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언젠가 한 젊은 주부가 창백하고 슬픈 얼굴로 안내실에 오셨습니다. 몸속 태아를 지키지 못한 죄를 지었다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애절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분의 마음이

절절히 이해되어 맨발로 안내실 바닥에서 절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회는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늘 밝은 미소로써 길상사의 얼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회 발원문 중 일부입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길상사의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지요? 문수회 안내실은 그렇게 길상사의 첫인상을 만들어 가는 문수회원들의 기도처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선 해

5시 30분, 새벽을 가르는 알람소리가 아침잠이 많은 나를 단숨에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한다. 하안거 아침 좌선 수행을 위해서다.

죽비 소리를 시작으로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좌선에 들어간다. 나도 호흡을 통한 수식관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오롯하게 만들어본다. 들고 나는 한 호흡 속에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고 생각하니 순간 짜릿함이 느껴진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수식관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자비명상에 들어간다.

나를 비롯해서 내가 존경하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부터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저 밑바닥에 고여 있는 자비심을 발현시켜 본다.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멀리는 지구 저쪽 누군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온 우주 생명이라 부르는 그 어떤 존재들까지도 다 보듬어 안아본다.

그러나 웬걸, 나와 가까운 대상

일수록 사랑한다고 여겼던 대상일수록 내 속의 자비심은 꿈쩍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 이르러서는 더욱 철통같다.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감로수를 내 정수리에 쏟아부어도 단 한 방울도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린다. 물에 기름처럼, 내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지 못함에 절망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바람이 영육에 물든 삶의 한 가운데 서있는 현실의 나를 마구 밀어내고 나이기를 거부하며 몸부림친다. 그럴수록 더 밝은 빛으로 나를 조명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본다.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이지만 외면하지 않고 더 크게 눈을 뜨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본다.

오늘은 문득 나 자신에게 연민이 솟구친다. 자비의 손길로 온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져주고 싶은 충

동에 사로잡힌다.

‘나는 모든 적의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번민으로
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작은 구멍
으로 자비의 샘물이 흘러나와 나를
적시고 법당 가득 아니 온 세상이
자비감로수로 넘쳐난다.

‘생명있는 것은 모두 적의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번
민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행복하
기를’

나는 지금 나를 찾아 떠나는 여
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행로가
외롭고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 설
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침 좌선 수행>

지난 하안거 결제일을 시작으로 매일 아침 진행했던 ‘아침 좌선 수행’은 해제 후에도 계속됩니다. 진지하게 수행하시려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동참하셔서 아침을 수행으로 열어보세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좌선을 하고 그 후에는 자기 수행을 점검하고, 수행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스님께 묻는 시간도 있습니다. 설법전에서 합니다.



묘희원(4일, 매월 첫째 일요일)

(소감 : 김광수 모듬장)

오전작업은 비가 오는 관계로 정신 지체 장애인 보호시설인 “불이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혼자서는 판단하기도 이동하기도 힘든 장애자들이 웃놀이, 노래부르기 등을 열심히 따라 하면서 장애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매우 희망적으로 보였다.

비가 개인 오후에는 2개조로 나뉜 한 조는 철거된 황토방 자리에 임시 자재창고 신축을 위한 지붕이음자재 나르는 일을, 다른 조는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묘희원 내에 새로 조성된 빈터에 잔디 이식 작업을 하였다. 오늘도 열심히 마무리해준 회원들과 함께 즐거움을 간직했다.

진인선원(11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 이금재 모듬장)

댓글과 문자로 참여의사를 표현하여 주신 분은 6명. 이성학 실장님과 민요 하시는 선생님은 전화로 참여. 봉사당일 아침에는 12명이 나와 서로 어색한 만남을 하고 있었다. 이슬비 속에서 진인선원에 도착하니 비는 그쳤고 서로 아침 요기와 정다운

답소를 나눴다. 오이 크기까지 그려 주고 지하실 청소방법까지 자세하게 작업 지시하신 진인선원 선생님 덕분에 오전 일은 쉽게 마무리되었다.

오후 어르신들과 놀이장소는 법당. 김창수님의 웃음과 박수놀이, 김경옥님의 민요와 회심가, 추종숙님과 백선미님의 아름다운 춤사위, 그리고 박진원님의 몸놀림 등등이 합하여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진인선원 선생님이 주신 수박을 먹으며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토론했다.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 등 다양성을 포용하고자 하는 맑고 향기롭게에서 자원활동에 참여하신 분의 종교적인 마음도 헤아려 호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곱씹어 보며 서울로 향했다.

전회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 엄경숙 모듬장)

■ 김태현 - 길음동에 거주하는 김00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산으로 운동을 다니면서 건강을 챙긴다. 반찬은 맛있다고 하며, 현재 아픈 곳은 없고

학생이 매년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최00 할머니는 의사표현이 약간 힘드셔서 몸이 불편할 때는 가끔 귀찮아하시지만, 매년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다. 여름에는 반찬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전했다.

■ **임진성** - 인천으로 이사가신 박00 어르신은 반찬을 지원받으려 월곡1동사무소까지 오신다. 일상의 소일거리로 여기시며, 늘 감사해 하신다. 최근에 가끔 손자가 전화를 받는다. 며느리가 며칠째 집을 나가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

(소감 : 권미자 모듬장)

■ **5일 권미자** - 오랜만에 식기세척을 맡았다.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식기세척은 땀이 많이 나 누구나 피하는 일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끝냈다. 봉사가 끝난 후 회원님들과 깜짝회식. 김은주(환희심) 회원 거사님께서 시청 행정담당 부시장으로 승진해 점심을 내셨다. 덕분에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 홍정근 봉사팀장)

■ **정은영 복지사** - 요가 선생님이 아이들과 스트레칭 및 자세 균형잡기 위주로 진행했다.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했지만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위로를 해주며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요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안마해주었다. 청소년들은 아이들의 안마를 받고 피로가 모두 풀렸을 것이다.

■ **김영신** - 여자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요가를 잘 따라하고, 몸도 유연한 것 같다. 근력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해보았다. 요가와 놀이를 더 붙여 봉사자와 아동이 역할을 바꿔 안마해주기를 했는데 즐거워한 것 같고, 시설에서 새로 준비한 요가매트 쿠션이 좋아 진행에도 도움이 되었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소감 : 최두리 모듬장)

■ **1, 2일** - 1일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더웠고, 2일은 옷이 흠뻑 젖

을 정도로 소낙비가 내렸다. 날씨와 상관없이 오실 분은 다 오셨고 다듬고, 씻고, 썰고, 조림까지 일사천리로 많은 양을 끝냈다.

■ 8일 -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칼이며 도마가 부족할 정도였다. 텅지만 아주 신났다. 철도청 나눔이회에서 여름이면 콩국수를 준비해 오신다. 진하고 고소한 콩국을 많은 분들이 맛나게 드셨다. 감사합니다.

■ 15, 16일 - 더위가 기승을 부려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된다. 다음주 월요일이 초복이라 삼계탕을 준비했다. 찹쌀을 불리고 마늘 대추 황기까지 닭의 배에 가득 채웠으니 어르신들은 푹 끓여 드시기만 하면 된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여름나세요.

■ 22, 23일 - 모처럼 물일이 엄청 많았다. 상큼한 깻잎김치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이 많을 줄 몰랐다. 물일하셨던 분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총 353가구, 단체 1곳)

1째주 - 코다리 조림, 양파김치

2째주 - 김치

3째주 - 삼계탕, 오복채

4째주 - 감자조림, 깻잎김치

5째주 - 계란장조림, 단무지무침

- 결식이웃후원금 6월 1일 ~ 30일 14,817,000원
- 결식이웃 후원품 익명 파 2박스, 유정상 특식(삼계탕 일부 보조금)

결식이웃후원 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결식이웃을 위한 밑반찬 공도>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고, 메뉴가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밑반찬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꼭 여름철이 아니어도 영양 좋고 맛 좋은 우리 집만의 메뉴가 있으면 살짝쿵 얘기해 주세요.

■ 담당: 02)741-4696,7

(연혜숙 팀장)

서울모임

4대강 개발반대 서명

‘맑고향기롭게·길상사’ 8백명 동참

조계종단은 6월부터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를 구성, 「4대강 생명살림불교연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조계종 승려 4,812명이 4대강 중단 촉구 시국선언을, 13일에는 재가불자 1만 6,917명이 4대강 개발 반대 평화선언을 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승려 시국선언에 주지스님 등 4명, 재가불자 시국선언에 800명이 참여했습니다. (7.6~13 일주문 앞 서명)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제에 ‘맑고향기롭게·길상사’ 참여

지난 7월 17일(19:30) 시청 앞 광장에서 거행된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제’에 이사장 덕현스님을 비롯한 회원·신도 2백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숲기행

8월 21일, 팔공산 치산계곡

- 집결지 및 출발 시간 - 길상사 일주문

앞: 오전 6시 10분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5번 출구: 오전 6시 20분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출발 시간 엄수)

- 준비물: 도시락, 간식, 식수, 우산, 모자, 장갑, 등산화 착용 필수
- 문의: 02)741-4696,7(홍정근 팀장)
- 남은일정: 9월 18일 - 죽령옛길 / 10월 16일 - 죽계계곡~초암사~비로사~삼가리 구간

다시 찾아가는 숲기행

8월 29일(다섯째주)

그동안 숲기행에 참여하지 못한 대기자를 우선순위로 8월 29일 “문경운달산과 김룡사”를 다시 찾아가는 숲기행을 특별기획하였습니다.

- 42명 모집(입금순) / 맑고 향기롭게 회원·길상사 신도 2만원(직계가족 동일) 비회원 2만5천원 / 외환은행 301-22-00270-1 (사)맑고 향기롭게 / 취소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으며, 결식후원 처리됨

변경사항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후원금을 정리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1. 지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없음
2.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 어느 동의 아무개씨인지 알 수 없음
3. 주소변경이라고 체크하고 바뀐 주소만 써서 보냄(이름, 전 주소, 전화번호 없음)
4.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음. 변경사항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알려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알뜰나눔장터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 한 달 동안 우리 집의 쓰레기를 모아두었다면 얼마만큼이나 될까요? 불필요한 물건은 맑고 향기롭게 알뜰나눔장터로, 수시로 기증 받습니다.

- 2010년 8월 22일(일) 오전 11시~오후 2시 길상사 트랙
- 헌옷, 헌책, 의류재활용 소품, 친환경용품 등

맑고 향기롭게 정기 회원만남

8월 20일(금) 오후 2시, 설법전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노력으로 매월 회원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 덕현스님의 법문과 2부 행사로 진행됩니다.

8월 주말 선수련회 안내

8월 28~29일(구참반 1박 2일)

※ 8월 신참반은 열리지 않습니다.

승가원 여름캠프 실시

승가원 아동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활동 캠프가 지난 7월 29~30일(1박 2일) 청평 자연휴향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장애아동 25명, 생활재활교사 15명,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 자원봉사자 15명 등 총 55명이 참석했습니다.

8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매달 첫째 일요일(8월 1일) / 오전 8시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 결식아동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8월 5일, 6일, 12일, 19일, 20일, 26일, 27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차림(※ 12일은 김치 담그는 날)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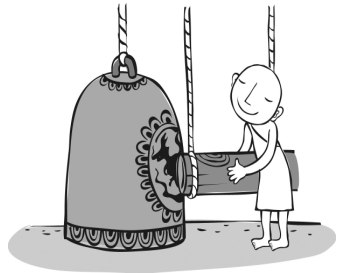
- 째 일요일(8월 8일) 오전 8시 20분 경
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활동 / 1, 2, 3주 목요일(8월 5일, 12일, 19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8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매월 첫째 수요일(8월 4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셋째 일요일(8월 15일) / 오전 9시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월례회의 / 8월 9일(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 서울모임 사무실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들) / 바느질방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오후 2시 30분 / 바느질방 / 선착순 10명 마감
 - 숲기행 / 8월 21일(토) / 영천 팔공산 치

산계곡

- 다시 찾는 숲기행(특별기획) / 8월 29일(토) / 문경 운달산, 김룡사
- 알뜰나눔장터 / 8월 22일(일) / 길상사 경내
- 봉사팀 모듬장 회의 / 8월 24일(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무실
-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 / 구참반 : 8월 28~29일(* 이번달 신참반은 열리지 않음)
- 맑고 향기롭게 회원만남의 날 / 8월 20일(매달 셋째 금요일) / 오후 2시 / 설법전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8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4 / 11 / 18 / 25일(매주 수요일)
10:00 ~ 12:00
- 장애인 이동목욕
4 / 11 / 18 / 25일(매주 수요일)
09:00 ~ 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5 / 12 / 19 / 26일(매주 목요일)
10:00 ~ 13:00
- 노인건강센터 어르신 목욕활동
5/19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병동 목욕봉사
12/26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5 / 12 / 19 / 26일(매주 목요일)
09:30 ~ 13:30
- 동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6 / 13 / 20 / 27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목욕
6 / 13 / 20 / 27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6 / 13 / 20 / 27일(1~4주 금요일)
09:30 ~ 12:00
- 2일(월) 자원봉사자회의
(매달 첫 번째 월요일)
- 7일(토)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10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7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7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7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8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8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8/18)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 ~ 14시 (8/24) / 매주 토요일 오전 10 ~ 14시 (8/7, 14, 21, 28)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5시 (8/6)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9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8/13, 27)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8/6, 13, 20, 27)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8/25)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8/10(화) 19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8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밀반찬지원 / 매주 수요일(4, 11, 18, 25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20일) 오후 7시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 14일(토) 오후 2시~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17일(화) 대구은행 본점 9시 출발 / 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등
- 황금복지관 /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매월 첫째 화요일(3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 14일 오후 3시 본회 차담실
- 운영위원회 회의 / 셋째 금요일(20일) 본회 차담실
- 룸비니동산 봉사 소감
때 이른 무더위로 아이들이 많이 지쳐있을 것 같다는 예상과는 달리, 아

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 새로 들어온 희철이는 몸이 불편해 고정 의자에 앉아있어야 했는데 많이 불편했는지 괴로운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요새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지 남이는 한창 숙제에 매진하는 모습이었고, 동빈이는 바닥에 누운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나 바지자락을 잡고 놔주지 않는 장난을 쳐 모든 사람들이 곤란함과 유쾌함을 동시에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워 더 오래 있고 싶었으나, 봉사자MT와 날짜가 겹쳐 2시간 단축해 방문을 마쳤습니다.

● 봉정암 기도순례를 떠납니다.

- 9월 4일(토) ~ 5일(일) 1박 2일 / 선착순 35명 / 동참금 : 8만원(4일 아침 및 점심 등 제공)
대구은행 002-10-006070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준비물 : 철야기도준비, 산행복장, 긴 옷, 등산화, 랜턴, 개인위생용품 외
- 일정 4일 : 아침 6시 출발(대구은행

본점 앞) → 용대리 → 백담사 → 영시암 → 봉정암

- 5일 : 새벽 4시 기상 → 대청봉 일출 → 소청봉 → 공릉능선 → 오세암 → 백담사 → 용대리 → 대구도착
- 접수문의 : (053) 753-8883

광주모임(062-236-3129)

8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 ~ 금 각하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리시간 : 오전 10 ~ 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7월 대상도서 : 아름다운 마무리) / 주관 : 현장스님 / 8월 27일(매월 지장재일) 오후 2시 지장왕사



<90일 백중기도 회향 및

하안거 해제 법회>

백중기도 회향 및 하안거 해제법회를 8월 24일(음 7/15)에 봉행합니다. 해제일이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90일을 기도하고 수행하며 보냈던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다시 불도(佛道)로 나아가는 고삐를 당기게 됩니다.

또한 조상 및 인연 있는 영가들의 천도를 위한 백중기도 막재도 올립니다. 막재에는 관욕식을 하기 때문에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간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꼭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8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극락전

<불교입문강좌 접수중>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불교입문강좌 가을학기가 9월에 개강합니다. 불교에 다가서는 첫 걸음을 입문강좌에서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이번 학기부터는 그동안 시간이 맞지 않아 수강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야간반을 개설했습니다.

- 개강 : 9월 2일(목)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저녁 7시 30분(야간반)

- 문의 : 길상사 교무실 3672-0036

<종신도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작년 8월 16일 발족한 길상사 종신도회의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열립니다.

- 일시 : 8월 15일(일) 오전 11시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법회가 끝나면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새신도교육’이 진행됩니다. 간단한 사찰예절과 예불, 그리고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불교에 한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일요법회 후 공지시간에 새신도교육에 대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해서 동참하시면 됩니다.

<자비도량참법 7일 기도 안내>

하안거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 회향을 앞두고 7일간 오후 2시에 (자비도량참법)기도를 봉행합니다.

참회와 발원으로 기도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기도법사 : 대중스님

- 입재 : 8월 17일(음 7/8, 화)
- 회향 : 8월 23일(음 7/14, 월)
- 시간 : 오후 2시 극락전

<2011년 대입수능 백일기도 안내>

입시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수능 100일 기도를 봉합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입재 : 2010년 8월 11일(수요일)
- 회향 : 2010년 11월 18일(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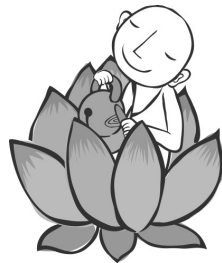
※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밝혔던 초파일 100일 연등을 하안거 해제일에 내리오니, 등을 밝히셨던 분들은 길상사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첫째 주는 주지스님, 나머지 주는 정화스님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8월 14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림 정기법회/ 1,3주 일요일 오후 1시/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매달 음력 초하루/ 8월 10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매달 셋째 월요일 / 8월 16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매달 둘째 월요일 / 8월 9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매달 넷째 화요일 / 8월 24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매달 첫째 월요일 / 8월 2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그날은 하늘이 뽕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행사 때인 저녁에는 조금 그치려나 했는데 역시나 끝까지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우비를 입어도 처음에만 효과가 있었고 나중에는 속옷까지 축축히 젖었습니다. 공연 절정의 시간대에 오히려 더 쏟아졌던 비, 대단했던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빗속에서 보는 공연은 짜릿했습니다. 무대와 관객, 비 모두 하나가 되었던 날. 환호와 눈물 속에서 가신 님의 흔적을 더욱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저녁,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제」의 일입니다. 그날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에서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많은 사부대중이 참여했습니다. 그 전날 급하게 깃발과 현수막을 만들어 시청 앞 광장에서 흔들기도 했지요.

법정스님은 2008년 4월 봄 정기법문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2008년 5월 소식지에도 ‘한반도 대운하 안된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자연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스님의 생명관에 의하면 어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4대강 개발사업은 강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 논란은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베어지고 불태워졌으며, 강이 파헤쳐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그 터에 깃들던 생명불이들이 땅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아니고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 아닐까요? 모든 땅과 물은 나의 옛몸이요, 모든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라는 말을 되새겨 봅시다. 4대강을 그대로 흐르게 해주세요.

그날 참여하시고 봉사해준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